

2013년 6월 13일 공보 2013-6-16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13년 6월 13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장정수

Tel : 759-4066 Fax : 759-4485 E-mail : cschang@bok.or.kr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으나 유로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계속 부진하였으며 중국 등 신흥시장국에서는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는 약간 낮아진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 및 주요국 재정건전화 추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

	세계경제 성장률					주요국 국채금리 ¹⁾				
	(전기비연율, %)					(기말 기준, %)				
	12.1/4	2/4	3/4	4/4	13.1/4		13.3월	4월	5월	6.12일
미국	2.0	1.3	3.1	0.4	2.4	미국	1.85	1.67	2.13	2.23
유로지역	-0.2	-0.8	-0.5	-2.3	-0.8	일본	0.55	0.61	0.86	0.88
일본	4.8	-0.6	-3.6	1.2	4.1	독일	1.29	1.22	1.51	1.59
중국 ¹⁾	8.1	7.6	7.4	7.9	7.7	스페인	5.06	4.14	4.44	4.63
						이탈리아	4.76	3.89	4.16	4.39

주: 1) 전년동기비
자료: Bloomberg, CEIC

주: 1) 10년물
자료: Bloomberg

[실물경제]

- 국내경제를 보면, 소비 및 설비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호전되고 건설투자가 큰 폭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미약하나마 지속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 났으나 제조업에서의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월보다는 증가규모가 축소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가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상당기간 마이너스의 GDP갭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

실물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11	2012	3/4	4/4	13.1/4	13.1월	2월	3월	4월	5월
GDP 성장률	3.7	2.0	1.6	1.5	1.5	-	-	-	-	-
GDP 민간소비	2.4	1.7	1.7	2.7	1.5	-	-	-	-	-
소매판매	4.5	2.3	2.6	2.5	0.1	-2.7	1.6	1.7	2.2	..
(S.A, 전기비)	-	-	(1.2)	(0.4)	(-1.3)	(-1.9)	(-0.8)	(1.6)	(-0.5)	..
GDP 설비투자	3.6	-1.9	-6.9	-5.2	-11.9	-	-	-	-	-
설비투자지수	4.0	-2.0	-8.2	-6.9	-15.4	-15.7	-22.5	-8.1	-12.4	..
(S.A, 전기비)	-	-	(-6.8)	(0.8)	(-4.6)	(-8.8)	(1.0)	(-0.4)	(-4.0)	..
GDP 건설투자	-4.7	-2.2	-0.3	-4.2	2.4	-	-	-	-	-
건설기성액	-6.4	-5.8	-2.3	-5.6	5.2	8.8	3.6	3.8	19.2	..
(S.A, 전기비)	-	-	(1.0)	(1.4)	(4.4)	(-0.3)	(5.5)	(-2.4)	(9.4)	..
수출(통관)	19.0	-1.3	-5.8	-0.4	0.4	10.9	-8.6	0.1	0.4	3.2
(일평균, 억달러)	(20.2)	(20.0)	(19.0)	(20.4)	(20.2)	(19.0)	(20.7)	(21.0)	(19.3)	(21.0)
제조업 생산	6.0	0.8	-1.1	-0.2	-1.8	8.0	-9.8	-3.0	1.8	..
(S.A, 전기비)	-	-	(-2.3)	(3.0)	(-0.9)	(-0.9)	(-1.3)	(-2.3)	(0.7)	(..)
서비스업 생산	3.2	1.6	1.5	0.8	0.9	1.3	0.3	1.0	2.6	..
취업자수 증감 ¹⁾	415	437	506	342	257	322	201	249	345	265
(공공부문 ²⁾ 제외)	424	437	519	377	274	348	209	265	333	257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감, 천명(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물 가]

- 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 등으로 전월의 1.2%에서 1.0%로 낮아진 반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균원인 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4%에서 1.6%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의 변동 등 공급측면에서의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				
	13.1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	1.5	1.4	1.3	1.2	1.0
(전월비)	(0.6)	(0.3)	(-0.2)	(-0.1)	(0.0)
▪ 농축수산물	2.1	3.3	-0.6	0.3	-1.2
▪ 공업제품	1.3	0.7	0.8	0.2	-0.1
▪ 전기수도가스	4.4	4.2	6.1	5.9	5.9
▪ 서비스	1.3	1.2	1.5	1.5	1.4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1.2	1.3	1.5	1.4	1.6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1.4	1.2	1.4	1.4	1.3

-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으며, 지방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주택가격상승률

	(전월비, %)				
	13.1월	2월	3월	4월	5월
주택 매매가격 ¹⁾	-0.1 (-0.3)	-0.1 (-0.2)	0.0 (-0.1)	0.0 (0.1)	0.0 (0.2)
▪ 수 도 권 ²⁾	-0.2 (-0.5)	-0.2 (-0.4)	-0.2 (-0.2)	-0.1 (0.0)	-0.1 (0.1)
(서 울)	-0.2 (-0.5)	-0.2 (-0.3)	-0.2 (-0.1)	-0.1 (0.0)	-0.1 (0.1)
▪ 광 역 시 ³⁾	0.1 (0.1)	0.1 (0.0)	0.2 (0.0)	0.2 (0.3)	0.2 (0.2)
▪ 지 빙 ⁴⁾	0.1 (0.0)	0.0 (0.0)	0.1 (0.1)	0.1 (0.2)	0.1 (0.2)
주택 전세가격 ¹⁾	0.2 (0.2)	0.3 (0.2)	0.4 (0.4)	0.4 (0.5)	0.2 (0.3)
▪ 수 도 권 ²⁾	0.2 (0.2)	0.3 (0.2)	0.4 (0.5)	0.4 (0.5)	0.2 (0.2)
(서 울)	0.3 (0.3)	0.3 (0.4)	0.4 (0.6)	0.3 (0.3)	0.2 (0.2)
▪ 광 역 시 ³⁾	0.3 (0.2)	0.3 (0.2)	0.5 (0.3)	0.4 (0.6)	0.2 (0.4)
▪ 지 빙 ⁴⁾	0.3 (0.2)	0.2 (0.2)	0.4 (0.3)	0.4 (0.4)	0.2 (0.3)

주 : 1) ()내는 한국감정원 지수 기준

2) 서울, 인천, 경기 3)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4) 한국감정원 지수는 수도권 제외(5대 광역시는 포함)

자료 :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금융시장]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국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에 의해 주로 영향받으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으로 전환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크게 올랐으며 환율도 상당폭 상승하였다.

금리, 주가 및 환율¹⁾

	13.1월	2월	3월	4월	5월	6.12일
CD(91일)금리(%)	2.84	2.82	2.81	2.81	2.69	2.69
국고채(3년)금리(%)	2.76	2.63	2.52	2.49	2.78	2.88
KOSPI	1,961.9	2,026.5	2,004.9	1,964.0	2,001.1	1,909.9
원/달러 환율	1,089.0	1,083.0	1,111.1	1,101.2	1,129.7	1,133.6

주: 1) 기말기준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의 변화 추이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